

인사말씀

이번에 忠州市에서 주최하는 中原文化學術會議를 本韓國美術史學會에서 主管토록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한편 양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본 학회의 회원 및 이 방편을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이곳 忠州市와 中原郡을 중심으로 한 中原地區文化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찍부터 꾸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忠州법 건설에 따라 水沒되는 여러 지역의 중요한 文化遺蹟地를 발굴조사하여 이곳 一帶를 중심한 中原文化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漢江유역은 支石墓群을 비롯하여 많은 先史遺蹟이 있고 더욱이 歷史時代에 이르러는 高句麗가 南쪽으로 세력을 확장 하였을 때 대동맥의 역할을 하였으며 이후 新羅가 鳥嶺과 竹嶺을 넘어 北進 하였을 때에도 또한 大進軍路로 택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千里水路 漢江邊에는 先史時代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歷史의 자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漢江유역에서도 특히 中·上流가 되는 이곳 忠州市와 中原郡은 일찍이 高句麗가 國原城을 설치하였던 자리이고 이후 이곳을 점령한 新羅는 中原京을 설치하여 이곳 일대의 治所로 삼았던 것이니 실로 유서 깊은 역사의 고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 개최되는 이 中原文化學術會議가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읍니다. 오늘의 學術會議에서는 이곳 忠州市와 中原郡을 중심으로한 忠北 일대의 「中原文化圈」설정에 앞서 中原地區의 文化를 考古學的인 측면, 歷史的인 배경, 美術史的인 측면, 建築造形的인 특성 등의 여러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구명하는데 있어서 이렇듯 중요한 지역의 종합적인 연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래도 이번의 학술회의가 先驅적 이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같은 모임이 속속 있게 되리라 생각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할 뿐입니다.

금번 이곳 忠州市에서 여려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크게 관심을 갖고 이와같은 중요한 학술회의를 주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一九八三年 十月 八日

韓國美術史學會 代表委員 鄭 永 鎬